

# 중년기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Care-Oriented Morality and Justice-Oriented Morality in Middle-Aged Adults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정옥분\*\*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곽경화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Professor : Chung, Ock-Boon

School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Duksung Women's Univ.

Lecturer : Kwag, Kyung-Hwa

---

### <Abstract>

This is a study of care-oriented morality and justice-oriented morality among middle-aged adults. Thirty seven males and forty six females between the ages of 45 and 59 years old participated in this study. Care-oriented morality was measured by the Ethic of Care Interview(ETCI) while the justice-oriented morality was assessed using the Korean Defining Issues Test(DIT). Sex role identification was interpreted by using the Korean Sex Role Inventory(KSRI). In terms of care-oriented morality, the majority of the subjects were at level 2. The P(%) score of justice-oriented morality was found to be a little low. We foun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ders in terms of care-oriented morality, with females exhibiting a higher care-oriented morality.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ex role identity types in terms of care-oriented morality. Nor did we find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sex role identity.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in justice-oriented morality,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sex role identity types. Masculine males possess the highest justice-oriented morality.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was found to exist between sex role identity and gender.

---

▲ 주요어(Key words) :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care-oriented morality), 정의 지향의 도덕성(justice-oriented morality), 성역할 정체감(sex role identity), 중년기(middle-adulthood)

### 1. 서론

중년기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중간 세대로서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성숙과 성취의 시기이지만 점차 자신의 하강과 은

퇴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또한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자아정체감을 재확립하며, 가족관계와 세대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이다. 다시 말해, 중년들은 노화 현상으로 인하여 인생의 한계성을 절감하며, 노부모 부양이나 자녀 양육, 부부 갈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경험하며, 인생에 대한 회의와 정체성 혼돈, 불안 등을 수반하게 된다.

---

\* 본 논문은 2000년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

\*\* 주저자 : 정옥분(E-mail : obchung@korea.ac.kr)

특히, 우리나라의 중년들은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간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손영희, 2000). 게다가 중년기는 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것은 왜곡된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 부정 부패와 같은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도덕성이란 도덕적 원리에 기반을 둔 행위의 체계로, 사회성원으로서 사회 규범을 준수하고, 도덕 원칙에 따라 사고하고, 새로운 도덕 원리를 창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김현배, 1994). 즉, 도덕성 발달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윤리적 가치 체계를 정립하며,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것을 의미한다(추병완, 1999).

Kohlberg는 도덕적 행위란 도덕적 판단능력을 의미하며, 도덕적인 판단의 원리를 정의(justice)로서 간주하였다. 정의의 관점에서는 인간을 주체적으로 인식하며, 우선적으로 개인의 권리나 평등·공정성·의무 등을 강조한다(이미식, 2000). 반면, 남성 중심적인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을 대신하여, Gilligan은 여성의 도덕성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으로 보살핌(care)의 윤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살핌의 관점에서는 상호 의존적 인간관계 및 책임감과 의무,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사랑 등의 특성을 중시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다(박병춘, 1995).

최근들어, 정의와 보살핌의 윤리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접근되어져 왔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정의와 보살핌이 지니고 있는 독특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별적인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으며, 정의와 보살핌이 통합된 성숙한 인격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덕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도덕적 상황을 공정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며,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배려와 공정한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이미식, 2000). 이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중시하며 보편적인 규칙이나 원리에 근거하여 사고한다고 하는 정의의 윤리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중시하며 맥락적이거나 상대적으로 사고한다고 하는 보살핌의 윤리가 통합되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정의와 보살핌의 윤리에 관한 통합적 관점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시급하게 요구되는 과제이다. 이는 서구적 요인과 전통적 요인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규범이나 가치관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적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동원,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덕성 발달을 정의와 보살핌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인간의 도덕성에 관한 통합적인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것은 성별에 따른 역할, 즉 성역할이다. 성역할이란 개인이 속한 문화권내에서 그 개인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로 특징 지워지는 일련의 특성을 말한다(정옥분, 1998; Perry, & Bussey, 1984). 전통적인 성역할의 관점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단일 차원상의 양극단에 위치하고, 사회적으로 고정 관념화된 성역할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복잡하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단일 차원의 성역할 개념은 효과적인 적응에 적합하지 않으며, 남성성과 여성성은 연속선상의 단일 차원이 아니라 독립된 차원으로서, 개인은 두 특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는 심리적 양성성(psychological androgyny)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Bem, 1974). 남녀는 뚜렷이 다른 성격을 지녀서 여성은 여성성만을 남성은 남성성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던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양성적 시각은 남자든 여자든 양성성을 지닌 사람이 여러 방면에서 심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시각에서는 양성성을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양성성을 바람직한 성격으로 간주하였다(정진경, 1990).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도덕성 발달에 관한 성차를 연구하였으나, 그 결과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 연구들(Gilligan & Attanucci, 1988; Lyons, 1983; 곡경화와 정옥분, 2000)은 도덕적 추론에 있어서 성차를 입증한 반면, 다른 연구들(Ford & Lowery, 1986; Walker, 1989)은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성차에 대하여 일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차보다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도덕성에 관한 연구들이나 Gilligan의 이론을 근거로 한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과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선영, 1987)가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Kohlberg의 정의 지향의 도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Rest가 제작한 DIT(Defining Issues Test)를 사용한 연구로서,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도덕성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한되어 왔으며(김보들만, 1993; 김영미, 1996), 주로 정의 지향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편, Gilligan의 이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보살핌 윤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정의 지향의 도덕성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관한 통합적 연구들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나 40~50대 중년 성인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덕성 발달에 관한 통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40~50대 중년기 성인의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및 정의 지향의 도덕성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있게 이해하고, 도덕

성 발달에서 성차가 있는지 아니면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도덕성 및 사고 방식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및 정의 지향의 도덕성을 통합적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발달시키기 위한 도덕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중년기 성인의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중년기 성인의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은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중년기 성인의 정의 지향의 도덕성은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년에 해당하는 만 45세부터 59세에 해당하는 성인 남녀 83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표집 방법은 개인적인 사항들을 심도있게 질문하고 개별면접을 실시해야 하는 관계로, 선·후배와 친지들을 통해 아는 사람들을 소개받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92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면접을 시도하였으나, 이 중에서 87명의 질문지를 회수하고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다. 그러나 수집된 자료 중에서 녹음 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미완성인 4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83명의 자료를 실제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중에서 남성은 37명(44.6%)이고, 여성은 46명(55.4%)이었다. 연령은 만 45~49세가 18.1%, 50~54세가 45.8%, 55~59세가 36.1%로, 중년 후기에 분포하는 수가 많은 편이었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10.8%, 고등학교 졸업이 54.2%, 전문대 졸업이 14.5%, 대학교 졸업이 20.5%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업이 없거나 기타가 43.4%, 서비스직이 4.8%, 판매직이 30.1%, 사무직이 4.8%, 행정관리직이 16.9%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가 33.7%, 불교가 59.0%, 천주교가 3.6%, 무교가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과 교육수준, 종교에서는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 수	구 분	성 별		전 체
		남	여	
연 령	만 45~49세	6(7.2)	9(10.8)	15(18.1)
	만 50~54세	18(21.7)	20(24.1)	38(45.8)
	만 55~59세	13(15.7)	17(20.5)	17(36.1)
교육수준	중학교 졸	6(7.2)	3(3.6)	9(10.8)
	고등학교 졸	16(19.3)	29(34.9)	45(54.2)
	전문대 졸	4(4.8)	8(9.6)	12(14.5)
	대학교 졸	11(13.3)	6(7.2)	17(20.5)
직 업	무직 및 기타	7(8.4)	29(34.9)	36(43.4)
	서비스직	4(4.8)	0(0.0)	4(4.8)
	판매직	12(14.5)	13(15.7)	25(30.1)
	사무직	4(4.8)	0(0.0)	4(4.8)
	행정관리직	10(12.0)	4(4.8)	16.9
	종 교	기독교	12(14.5)	16(19.3)
불교	22(26.5)	27(32.5)	49(59.0)	
천주교	0(0.0)	3(3.6)	3(3.6)	
무교	3(3.6)	0(0.0)	3(3.6)	
전 체		37(44.6)	46(55.4)	83(100.)

(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 2. 측정도구

#### 1)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koe(1987)가 제작한 「보살핌의 윤리 면접검사(ESI : Ethic of Care Interview)」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제작하였다.

「성인용 보살핌의 윤리 면접검사」는 반구조화된 면접 형식으로, 책임이나 보살핌에 관한 네 개의 도덕적 갈등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하나는 연구대상자가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을 질문하였으며, 나머지는 ① 혼외 임신에 따른 임신 중절의 문제, ②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결혼 생활과 이혼의 문제, ③ 부모 부양에 관한 효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우선,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나서 가상적 갈등상황들을 제시한 후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왜 그런지를 질문하였다. 여기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보다는 ‘왜 그러한 반응을 보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간의 상호의존성이나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갈등상황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은 자기 중심적 단계(제 1 수준)에서 타인 중심적 단계(제 2 수준)를 거쳐, 자아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는 단계(제 3 수준)로 발달한다. 이 때 제 1 수준과 제 2 수준 사이에는 제 1.5 수준이, 제 2 수준과 제 3 수준 사이에는 제 2.5 수준의 과도기가 존재한다.

Skoe(1987)가 각 수준별 특성을 보고한 「보살핌의 윤리 면접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판단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갈등상황마다 연구 대상자가 해당하는 단계를 결정하고, 도덕 수준들의 총합과 평균을 산출하였다. 즉,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은 연구 대상자가 해당하는 단계들의 평균을,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점수는 연구 대상자가 해당하는 단계들의 총합을 의미한다.

「성인용 보살핌의 윤리 면접검사」는 아동학 전공교수 3인과 3명의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들에 의하여 그 내용을 검토받았다. 그리고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을 분석한 후, 평정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들과 연구보조원의 평정자간 일치도와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Skoe와 Marcia(1991)가 보고한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평정자간 일치도는 93%~95%였고, 평정자간 신뢰도는 Cohen's kappa=.86~.94였다. 본 연구에서의 평정자간 일치도는 75%~94%였고, 평정자간 신뢰도는 Cohen's kappa=.76~.92였다.

## 2) 정의 지향의 도덕성

Rest(1979)의 「주제정의검사(DIT : Defining Issues Test)」는 Kohlberg의 주관식 개인면담 방법을 객관식 표준화로 변형·제작하여 도덕 판단능력 검사로 사용되고 있는 측정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용린(1986)이 제작한 「도덕 판단력 검사(한국형 DIT)」를 사용하였다. 도덕 판단력 검사는 원래의 갈등 상황 중에서 '납편의 고민', '탈옥수', '의사와 환자'를 번역한 12문항씩, 총 36개의 질문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각 12문항씩 총 36문항에 대한 피험자의 평정이 Kohlberg의 도덕성 발달단계의 하나를 나타내며, 각 개인 점수는 P(%)점수로 나타낸다. P(%)점수는 각 갈등상황의 12문항 중에서 피험자가 중요하게 생각하여 추출한 네 문항의 순위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수이다. 즉, 각 문항에 해당하는 단계별(2, 3, 4, 5A, 5B, 6) 점수를 합하여 단계별 점수를 구하며, 이 단계별 점수 중 5A, 5B, 6단계의 점수를 합산하여 P점수를 구하게 된다. 이 때 P점수를 3으로 나누면 P(%)점수가 산출되는 것이다. 이는 피험자의 도덕판단 중에서 후인습적 수준인 5, 6단계의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므로, P(%)점수가 높을수록 피험자의 도덕판단 수준이 높은 단계임을 알 수 있다.

## 3)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진경(1990)이 개발한 「한국 성역할 검사(KSRI : Korean Sex Role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한국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밝혀내어 이를 기초로 제작한 검사로서, 남성성 척도 20문항, 여성성 척도 20문항, 그리고 긍정성 척도 20문항의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성 문항은 여성에게보다는 남성에게 더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는 긍정적 문항들이고, 여성성 문항은 남성에게보다는 여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긍정적 문항들이다. 중성적이고 자신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을 표현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긍정성 문항은 어느 한 성에게 바람직한 특성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이다. 여기서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는 논리적으로 상호독립적인 것으로, 계산 과정에서도 독립적으로 산출된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분류 방법으로는 중앙치 분리법(Median Split Procedure)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각 연구대상자의 남성성 척도와 여성성 척도의 점수를 산출한 후, 각각의 중앙치를 구하였다.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두 점수가 모두 중앙치보다 높으면 양성적 정체감, 남성성 점수는 높고 여성성 점수는 낮으면 남성적 정체감, 여성성 점수는 높고 남성성 점수는 낮으면 여성적 정체감, 두 점수가 모두 중앙치보다 낮으면 미분화 정체감으로 분류하였다. 정진경(1990)이 보고한 성역할 정체감 척도의 신뢰도는 각 하위 영역별 Cronbach's  $\alpha$  =.75~.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1~.90이었다.

## 3. 연구절차

우선, 본 연구자들이 수정·제작한 「보살핌의 윤리 면접검사」의 내용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학 전공교수 3인과 3명의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에게 의뢰하여 질문 내용을 검토받았다. 예비조사는 2000년 12월 18일부터 2001년 1월 14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미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검사도구를 가지고 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하는 데 무리가 없는지,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조사는 2001년 2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특히,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은 면접자와 연구대상자간의 일대일 면접을 통하여 실시되었으며, 각각의 면접은 연구대상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되었다. 면접자가 측정도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한 후, 성역할 정체감 및 정의 지향의 도덕성에 대한 문항을 측정하고,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자는 피면접자에게 어떠한 강요나 압력을 가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보충 질문들을 통하여 갈등상황과 판단 근거에 관한 심도있는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다. 면접자가 보살핌의 윤리 면접검사를 실시하며 소요된 시간은 개인당 15~30분 정도였다. 면접이 끝난 후에는 녹음한 내용을 기록에 옮기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명의 평정자가 각 반응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평정자간의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기록 내용에 대해서는 토의를 통하여 합의 과정을 거쳤다.

4. 자료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고,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중앙치 반분법(median-split method)에 의하여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평정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Cohen's kappa를, 성역할 정체감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를 실시하였다.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변량분석에서 F값이 유의하게 나왔을 때,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 중다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모든 검사의 유의수준은 .05로 정했다. 이상의 통계 처리는 SPSS 7.5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중년기 성인의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

1)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각 수준에 따라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별 빈도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	성 별		전 체
	남	여	
제 1 수준	1(1.2)	0(0.0)	1(1.2)
제 1.5 수준	22(26.5)	3(3.6)	25(30.1)
제 2 수준	14(16.9)	43(51.8)	57(68.7)
제 2.5 수준	0(0.0)	0(0.0)	0(0.0)
제 3 수준	0(0.0)	0(0.0)	0(0.0)
전 체	37(44.6)	46(55.4)	83(100.0)

(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은 제 2 수준(68.7%)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제 1.5 수준(30.1%), 제 1 수준(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제 1.5 수준이 26.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제 2 수준(16.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제 2 수준이 51.8%로 절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각 단계

별 특성들과 실제로 면접한 사례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 1 수준 : 자기 중심적 단계

이 단계에서는 스스로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것이 특징이다. 도덕적 갈등은 자기 자신의 욕구간에 어떤 욕구를 먼저 충족할 것인가를 놓고 이루어진다.

①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상황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일차적인 관심을 둔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연히 휴지통 옆에서 10만원권 수표가 구겨져서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라 그냥 놔두면,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갈테고... 그래서 내가 줌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② 임신 중절에 관한 갈등상황

태어날 아이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자기 중심으로 사고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부남은 이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굳이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때문에 불행할 필요는 없다.

③ 결혼 생활에 관한 갈등상황1)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여 배우자에 대한 의무나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책임도 무시한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으므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배우자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④ 부모 부양에 관한 갈등상황

스스로의 행복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모실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유독 철수와 선아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철수와 선아가 부모님을 모실 필요는 없다.

(2) 제 1.5 수준 : 이기심에서 책임감으로의 변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나 연계성이 서서히 나타나며, 이기심과 책임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즉, 자기 중심적인

1)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상황과 임신 중절, 결혼 생활에 관한 갈등상황에서 각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 이를 제시할 수 없었다.

이기심이 타인을 배려하는 책임감으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어느 정도 증가했더라도,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다.

#### ①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상황

각자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나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충족하고자 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 내 생활도 있는데다, 병간호를 하루종일 하는 것도 힘에 부쳐 간병인을 부른 적이 있다. 여차피 나는 간호하는 것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간병인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다.

#### ② 임신 중절에 관한 갈등상황

타인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조금 있으나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자기 중심적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부남과의 사랑을 정리하고, 아이도 낳아야 한다.혜수는 장래가 촉망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자신의 앞날도 어둡게 만드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 ③ 결혼 생활에 관한 갈등상황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배우자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때로는 결혼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배우자나 자녀들을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승혼을 사랑하므로, 승혼의 요구를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가정을 버릴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정생활에 충실한다면 별 문제 없다고 본다.

#### ④ 부모 부양에 관한 갈등상황

잠시동안 부모님을 모시려고 시도하나 기본적으로는 부모님을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님을 설득하면 된다. 이왕이면 다같이 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철수와 선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 된다. 부모님인데,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 생각한다.

#### (3) 제 2 수준 : 책임감과 자기 희생의 단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모성애적인 책임감을 강조한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

에게 수용되는 것을 중시한다.

#### ①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상황

자기 자신의 관점이나 감정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도와주려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친구의 보증을 잘못 섰다가 경제적인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 그 친구를 고소하여 어떤 제재를 가하고 싶었지만 친구의 사정을 보아서 인내하고 넘어갔다.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힘든 시기였다.

#### ② 임신 중절에 관한 갈등상황

실수로 인한 임신일지라도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중시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혜수는 유부남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행동을 책임져야 한다. 인간의 감정은 순수하고 소중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도덕적·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따라야 한다.

#### ③ 결혼 생활에 관한 갈등상황

가족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무리 권태로운 가정이라고 해도, 본연의 자리인 가정의 테두리를 지켜야 하며,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삶의 활력이 될만한 취미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가정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④ 부모 부양에 관한 갈등상황

그동안 자녀를 키우느라 고생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당연하며, 무엇보다 부모님을 도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자식된 도리이다. 지금까지 고생한 부모님을 존경해야 한다.

#### (4) 제 2.5 수준 : 선행에서 관계에 대한 진실성으로 변화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타인을 보호하려는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되고, 자아와 타인에 대한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진행된다. 즉, 스스로의 희생과 인습에 내재된 보살핌 사

이에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게 된다.

①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상황

다른 사람들을 책임져야 할 필요를 느끼지만, 자신의 관점을 충족하기를 원한다. 타인에 대한 헌신이 중요하지만, 이전 단계보다 유동적이고 사려깊게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

② 임신 중절에 관한 갈등상황

생명의 소중함을 중시하지만, 자기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고,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조한다. 또한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지라도 낙태와 같이 다른 방안들에 대해 유동적으로 대처한다.

③ 결혼 생활에 관한 갈등상황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가정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있다. 결혼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나 별진전이 없다면 행복을 위하여 배우자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④ 부모 부양에 관한 갈등상황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각하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고려하여 잠시동안만 모셔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것이 옳지만 잠시 시간을 두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생긴 다음에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비없이 어른들을 모셨을 때 떠맡았다는 생각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 선아 자신이 남독한 다음, 내가 원해서 어른들을 모실 때의 태도는 극과 극일 것이다. 서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

(5) 제 3 수준 : 자신과 타인에 대한 보살핌의 단계

사회적 인습에 제한받지 않으며, 스스로 선택한 결정에 책임진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관계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타인과 자신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며, 이기심과 책임감 사이에 균형을 이룬다.

①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상황

타인의 의견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원칙에 따라서 해결한다. 의사 결정이나 판단의 기준이 보살핌의 윤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② 임신 중절에 관한 갈등상황

단순히 낙태를 원한다거나(제 1 수준), 임신한 여성이나 아이

를 무조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제 2 수준) 생각하기보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나 부모님, 가족 등 여러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한다.

③ 결혼 생활에 관한 갈등상황

자기 중심적 사랑(제 1 수준)이나 가족에 대한 희생(제 2 수준)에 치중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감정과 태도를 고려한다. 내면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며, 관련된 사람 모두를 역동성있게 고려한다.

④ 부모 부양에 관한 갈등상황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다거나(제 1 수준) 무조건 부양해야 한다고(제 2 수준)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떤 방안이 모두에게 최선인지를 고려한다.

2) 정의 지향의 도덕성

정의 지향의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의 지향의 도덕성의 각 단계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의 지향의 도덕성은 인습적 수준인 제 4 단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인습적 단계인 제 3 단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P(%)점수의 평균은 27.07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P(%)점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st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P(%)점수를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P(%)점수 집단에 따른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P(%)점수는 27점 이하인 집단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8~41점인 집단, 42점 이상인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정의 지향의 도덕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27점 이하인 집단이 2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42점 이상인 집단(12.0%), 28~41점인 집단(8.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은 27점 이하인 집단이 27.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다음은 28~41점인 집단(22.9%), 42점 이상인 집단(4.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점수의 집단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정의 지향의 도덕성 단계별 평균 및 표준편차

정의 지향의 도덕성 수준	남		여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인습적 수준						
제 2 단계	3.06	4.47	6.23	5.24	4.82	5.13
인습적 수준						
제 3 단계	27.12	9.94	16.23	10.92	21.08	11.77
제 4 단계	25.95	11.55	32.17	12.40	29.40	12.35
후인습적 수준						
제 5A 단계	16.94	12.48	15.58	13.44	16.18	12.96
제 5B 단계	1.08	2.49	1.52	2.96	1.33	2.75
제 6 단계	9.82	7.49	8.70	8.33	9.20	7.94
P(%)점수	28.65	16.82	25.80	13.81	27.07	15.20

<표 4> 정의 지향의 도덕성 수준별 빈도

P(%)점수 집단	성 별		전 체
	남	여	
42점 이상(上)	10(12.0)	4(4.8)	14(16.9)
28~41점(中)	7(8.4)	19(22.9)	26(31.3)
27점 이하(下)	20(24.1)	23(27.7)	43(51.8)
전 체	37(44.6)	46(55.4)	83(100.0)

(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표 5>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83)

	남		여		전 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양성적 정체감	6.46	1.20	7.91	.20	7.13	1.14
남성적 정체감	6.00	.03	8.00	.04	6.67	1.03
여성적 정체감	7.11	.94	8.00	.13	7.62	.75
미분화 정체감	6.75	.82	7.43	.85	7.23	.88
전 체	6.70	1.02	7.80	.53	7.31	.96

<표 6>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성별	19.68	1	19.68	35.12***
성역할 정체감	3.61	3	1.20	2.15
성별×성역할 정체감	2.89	3	.96	1.72
오차	42.03	75	.56	
전체	74.86	82		

\*\*\*p<.001



2. 중년기 성인의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계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점수<sup>2)</sup>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별에 따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점수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점수를 살펴보면, 여성적 정체감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미분화 정체감, 양성적 정체감, 남성적 정체감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은 성별에 따른 주효과(F=35.12, p<.001)는 유의하였으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중년기 성인의 정의 지향의 도덕성과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계

성별에 따른 정의 지향의 도덕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정의 지향의 도덕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정의 지향의 도덕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정의 지향의 도덕성이 높았다. 또한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정의 지향의 도덕성을 살펴보면, 남성적 정체감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미분화 정체감, 여성적 정체감, 양성적 정체감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정의 지향의 도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정의 지향의 도덕성은 성별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역할 정체감(F=3.17, p<.05)과 상호작용 효과(F=3.68, p<.05)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정의 지향의 도덕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Scheffé 중다 비교 검증을 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정의 지향의 도덕성은 남성적 정체감 집단과 양성적 정체감 집단, 여성적 정체감 집단, 미분

<표 7>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정의 지향의 도덕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83)

	남		여		전 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양성적 정체감	19.49	12.01	28.79	17.08	23.75	14.98
남성적 정체감	53.33	1.184E-15	33.33	4.12	46.67	10.33
여성적 정체감	30.95	18.04	19.65	8.53	24.44	14.33
미분화 정체감	26.67	10.96	30.71	15.42	29.50	14.07
전 체	28.65	16.82	25.80	13.81	27.07	15.20

<표 8>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정의 지향의 도덕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성별	251.87	1	251.87	1.36
성역할 정체감	1758.61	3	586.20	3.17*
성별×성역할 정체감	2041.88	3	680.63	3.68*
오차	13879.68	75	185.06	
전체	18941.22	82		

\*p<.05

2)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점수는 갈등상황마다 연구대상자가 해당하는 도덕 수준들의 총합을 의미한다.

화 정체감 집단과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적 정체감 집단이 양성적·여성적·미분화 정체감 집단보다 정의 지향의 도덕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과 성역할 정체감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정의 지향의 도덕성에서 남성은 남성적 정체감, 여성적 정체감, 미분화 정체감, 양성적 정체감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남성적 정체감, 미분화 정체감, 양성적 정체감, 여성적 정체감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정의 지향의 도덕성은 남녀 모두 남성적 정체감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9>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정의 지향의 도덕성 사후 검증

범 주	평 균	grouping
양성적 정체감	23.75	a
남성적 정체감	46.67	b
여성적 정체감	24.44	a
미분화 정체감	29.50	a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경우 단순주효과(simple main effects) 검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각 성별로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정의 지향의 도덕성을 알아보았다. 우선,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중년기 남성의 정의 지향의 도덕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년기 남성의 정의 지향의 도덕성은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 $p<.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 지향의 도덕성이 어떤 성역할 정체감 집단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성적 정체감과 양성적, 여성적, 미분화 정체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적 정체감 집단이 다른 정체감 집단보다 정의 지향의 도덕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중년기 여성의 정의 지향의 도덕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년기 여성의 정의 지향의 도덕성은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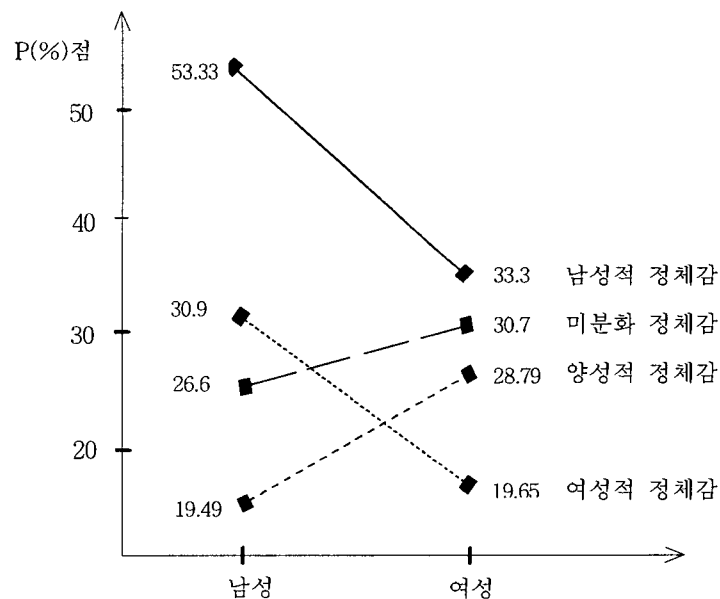
<표 10>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중년기 남성의 정의 지향의 도덕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성역할 정체감	3626.20	3	1208.73	6.08**
오차	6561.23	33	198.83	
전체	10187.43	36		

\*\* $p<.01$

<표 11>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중년기 남성의 정의 지향의 도덕성 사후 검증

범 주	평 균	grouping
양성적 정체감	19.49	a
남성적 정체감	53.33	b
여성적 정체감	30.95	a
미분화 정체감	26.67	a



<그림 1> 성과 성역할 정체감의 상호작용에 따른 정의 지향의 도덕성

<표 12>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중년기 여성의 정의 지향의 도덕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성역할 정체감	1268.64	3	422.88	2.43
오차	7318.45	42	174.25	
전체	8587.08	45		

IV. 논의 및 결론

1.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단계는 제 2 수준(68.7%)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 1.5 수준, 제 1 수준 순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을 연구한 국내 연구(곽경화와 정옥분, 2000; 정옥분과 곽경화, 2001)와 일치하고 있으나 국외 연구(Söchting, Skoe, & Marcia, 1994)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10대 청소년부터 5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Söchting과 Skoe, Marcia(1994)의 연구에서는 제 1.5 수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제 2.5 수준, 제 2 수준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Söchting과 Skoe, Marcia(1994)의 연구결과보다 제 2 수준이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관한 국내연구에서는 제 2 수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외연구에서는 제 1.5 수준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동·서양 간의 가치관 차이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집단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안녕과 책임의식을 중시하고, 개인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자율·독립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이익보다 공동체의 화합을 중시하는 집단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지향하고 있다. 유교에서는 타인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나만의 고유한 영역을 유지하는 절대적 자율보다는 타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배려함으로써 얻어지는 상대적 자율을 강조한다(이숙인, 1999). 이에 따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중에서도 자기 희생적인 배려와 보살핌을 중시하는 제 2 수준이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신의 이익을 공정하게 확보하고, 자율성과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개인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서구 사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는 제 1.5 수준이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을 독립된 존재로 분리하기보다 서로 간의 유대 의식을 바탕으로 돈독한 정을 쌓아가는 가치관을 강조하는 우리로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보살핌의 윤리라는 속성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문은희, 1995). 게다가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올바른 도덕적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살핌의 윤리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정의 지향의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인습적 수준인 제 4 단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인습적 수준인 제 3 단계, 후인습적 수준인 제 5A 단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P(%)점수의 평균은 27.07점으로 나타났다. 30대 성인의 도덕성 발달수준을 측정한 정옥분과 곽경화(2001)의 연구에서는 P(%)점수의 평균이 41.67점이었다. 윤지영(2000)의 연구에서도 30세 이상의 성인의 P(%)점수의 평균이 40.56점으로 나타났으나,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P(%)점수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또한, 후인습적 수준인 제 5A 단계, 제 5B 단계, 제 6 단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P(%)점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40~50대 중년기 성인의 정의 지향의 도덕성이 낮게 나온 것은 우리 사회의 고유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중년기는 1940~50년을 전후하여 출생한 세대로, 외래문화에 크게 오염되지 않고,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던 가부장적 가족주의 가치관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으며, 평등한 부부관계에 익숙하지 못하고,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자, 1998). 즉,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 책임과 같은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중년기 성인에게는 개인의 자율이나 정의, 권리, 독립심과 같은 서구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정의 지향의 도덕성이 낮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 희생적인 제 2 수준의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은 많았으나, 인간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개인의 권리나 자유·평등을 강조하는 정의 지향의 도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산업화로 인해 서구적 가치관이 급속히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적 가치관보다는 전통적 가치관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년기 성인의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전통이란 현재의 삶에 주도적인 원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를 가능하게 한 계기이면서 동시에 미래와 연결된다. 그러므로 전통은 그 실체를 부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통이 우리에게 개입하는 방식은 현재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집단주의로 인해 전체적으로 획일화된 행동을 강요받으며, 개인주의로 인해 왜곡된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관과 개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서구적 가치관을 통합하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즉, 21세기를 지배할 새로운 윤리는 개인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박윤명, 1997).

## 2.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은 성별( $p<.001$ )에 따른 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성역할 정체감 및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도덕적 지향성이나 도덕적 판단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몇몇 연구들(Gilligan & Attanucci, 1988; Lyons, 1983; 광경화와 정옥분, 2000; 정옥분과 광경화, 2001)의 결과와 일치한다.

Gilligan에 따르면, 여성은 어릴 때부터 정의나 원칙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친밀감을 중심으로 도덕성이 발달하도록 교육받는다. 즉, 여아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많은 시간을 공유한다. 반면, 남아는 어머니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나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특성을 발달시킨다. 즉, 남자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용기와 절제, 정의 등과 같은 도덕적 덕목을 익히는 반면, 여아는 희생이나 인내 등과 같은 심리적 성향을 갖도록 한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는 남녀 모두 어머니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하는 사회적 규범을 가지고 있으나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유교적 가치관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가정교육원리에 따르면,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하면 엄히 다스리고, 어머니는 자녀가 잘하면 칭찬해 주고, 잘못해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자비로운 사랑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과 양육행동 원리가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있어 성차를 유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3.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정의 지향의 도덕성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은 성별에 따른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역할 정체감( $p<.05$ )과 상호작용( $p<.05$ )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적 정체감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하여 정의 지향의 도덕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이면서 남성적 정체감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정의 지향의 도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기나 야망, 독립, 확신, 자율, 의지와 같은 덕목을 나타내는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 집단이 남성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 지향의 도덕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성적 정체감이 정의 지향의 도덕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구적 가치관의 유입으로 인하여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변화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 가치관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명백하며, 이러한 고정관념이 여성과 남성의 기

질과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구성원은 사회화의 과정에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사회화를 통하여 남성은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습득하게 되며, 여성은 부드럽고 수동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손은정, 1995). 게다가, 남성은 문화적으로 규정된 성역할에 따르라는 압력을 더욱 강하게 받는다. 따라서, 남성이면서 남성적 정체감 집단이 정의 지향의 도덕성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생물학적 성차와 사회문화적으로 전형화된 고정관념이 결합되어 남성 지향적인 정의 지향의 도덕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은 성별에 의한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정의 지향의 도덕성은 성역할 정체감에 의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이나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및 정의 지향의 도덕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유의한 차이가 없는지에 관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보다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하여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측정도구는 Skoe(1987)가 개발한 「보살핌의 윤리 면접검사」를 본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하였으나 보다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하여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의 지향의 도덕성을 Rest의 「주제정의 검사(Defining Issues Test)」를 사용하여 후인습적 수준을 의미하는 P(%)점수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DIT는 도덕적 추론보다는 인지적인 판단에 중점을 두는 척도이므로 정의 지향의 도덕성으로 보는 데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 또한 주제정의 검사는 연구대상자마다 하나의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살핌의 윤리 면접검사와 비교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개별면접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주관이 개입되어 해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중년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으나 만 45세부터 59세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면접의 한계성으로 인해 표본수도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또한, 직업 유형에 있어서 성차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표본의 대표성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므로, 연구결과와 일반화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접수일 : 2002년 3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5월 29일

**【참 고 문 헌】**

- 곽경화·정옥분(2000).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2), 213~232.
- 김명자(1989). *중년기 발달*. 서울 : 교문사.
- 김보들맘(1993). 도덕적 규칙 위반과 인습적 규칙 위반에 대한 아동의 개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1987).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실현성 및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1996). 부모의 성격 특성과 아동의 도덕성 발달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배(1994). 도덕성 향상을 위한 대화학습 모형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희(1995). 여성의 도덕적 사유와 판단 : 남성의 도덕성 저편에서. *현상과 인식*, 19, 25~48.
- 박병춘(1995). 도덕교육에서의 도덕적 성숙의 근거 연구 : 길리간의 보살핌의 윤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춘(1999). 보살핌 윤리의 도덕교육적 접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윤명(1997). 도덕성의 구성과 도덕 교육의 통합적 접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영희(2000). 중년기 여성을 위한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정(1995).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 위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가효(1995). 세계화를 위한 효 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 방향 모색. 한국과 미국의 자녀양육 방식과 비교문화적 고찰과 방향 모색,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63~88.
- 윤지영(2000). 비서직 종사자의 도덕성 발달수준과 직업윤리 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나현(1997). 배려의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한 도덕 판단 지향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원(1992).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 *지역사회의 윤리적 환경*, 제3회 사회윤리 심포지엄, 제3분과 가정과 지역사회 윤리적 기능, 216~225.
- 이숙인(1999). 유교의 관계윤리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 *한국여성학*, 15(1), 39~67.
- 정옥분(199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정옥분·곽경화(2001). 성년기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정의 지향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12), 225~238.
- 정진경(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5(1), 82~92.
- 조남욱·이동희·안재순·송석준·박홍식·이기동·권경안·이상은·최영진·오석원·최일범·천인석·양재열·이문주(1999). *현대인의 유교읽기*. 서울 : 아세아문화사.
- Bem, S. 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Ford, M. R., & Lowery, C. R.(1986). Gender differences in moral reasoning : A comparison of the use of justice and care ori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4), 777~783.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ligan, C., & Attanucci, J.(1988). Two moral orientations : Gende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Merrill-Palmer Quarterly*, 34(3), 223~237.
- Kohlberg, L.(1984).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 The nature and validity of moral stages. 김민남 역(1988). *도덕발달의 심리학 : 도덕단계의 본질과 타당성*. 서울 : 교육과학사.
- Lyons, N. P.(1983). Two perspectives : On self, relationships, and moral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53(2), 125~145.
- McNeel, S.(1994). College teaching and student moral development. In J. Rest & D. Narvaez(Eds.), *Moral development in the professions : Psychology and applied ethics*(pp. 27~50). Hillsdale, NJ : Erlbaum.
- Perry, D. C., & Bussey, K.(1984). Social development. 최상진·최순영 역(1988). *인간의 사회적 발달*. 서울 : 성원사.
- Rest, J. R.(1979). *Development in judging moral issues*.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koe, E. E.(1987). The development and partial validation of a care-based measure of moral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 Skoe, E. E., & Gooden, A.(1993). Ethic of care and real-life moral dilemma content in male and female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3(2), 154~167.
- Skoe, E. E., & Marcia, J. E.(1991). A measure of care-based morality and its relation to ego identity. *Merrill-Palmer Quarterly*, 37(2), 289~304.
- Söchting, I., Skoe, E. E., & Marcia, J. E.(1994). Care-oriented moral reasoning and prosocial behavior : A question of gender or sex role orientation. *Sex Roles*, 31, 131~147.
- Walker, L. J.(1984). Sex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 A critical review. *Child Development*, 55, 677~691.
- Walker, L. J.(1989). A longitudinal study of moral reasoning. *Child Development*, 60, 157~166.